

보도	2024.2.26.(월) 석간	배포	2024.2.23.(금)	
담당부서	공시심사실	책임자	팀 장	김종환 (02-3145-8470)
	공시조사팀	담당자	조사역	김정현 (02-3145-8472)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116건*(105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28건 증가)

*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

-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에 대하여 14건(12.1%)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102건(87.9%)을 경고 등 경조치

- 금년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하여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적극 안내·교육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

I.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28건이 증가(31.8% ↑)

- 이는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조치한 것에 기인

* '23년 중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

2 공시 유형별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 (71건)이 가장 많고,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 順

- (정기공시)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총 27건(23.3%)을 조치
- (발행공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14건 (12.1%)을 조치
- (주요사항공시) 전환사채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4건(3.4%)을 조치
- (기타공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71건(61.2%)을 조치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정기공시	38	(25.5)	90	(46.6)	35	(40.2)	35	(39.8)	27	(23.3)
발행공시	19	(12.7)	40	(20.8)	18	(20.7)	28	(31.8)	14	(12.1)
주요사항공시	39	(26.2)	11	(5.7)	25	(28.7)	18	(20.4)	4	(3.4)
기타공시	53	(35.6)	52	(26.9)	9	(10.4)	7	(8.0)	71	(61.2)
합 계	149	(100)	193	(100)	87	(100)	88	(100)	116	(100)

3 회사 유형별

◇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은바,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가 다수

- (상장법인) 코스닥 법인은 3사, 유가증권 법인은 1사를 조치
 -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

□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101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바,

-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

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사,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상장	유가증권	6	6	6	6	3	3	-	-	1	1
	코스닥	41	47	51	57	15	15	15	15	3	4
	코넥스	7	12	2	2	4	4	2	2	-	-
	소 계 (비 중)	54 (52.4)	65 (43.6)	59 (40.4)	65 (33.7)	22 (30.1)	22 (25.3)	17 (26.2)	17 (19.3)	4 (3.8)	5 (4.3)
비상장 (비 중)		49 (47.6)	84 (56.4)	87 (59.6)	128 (66.3)	51 (69.9)	65 (74.7)	48 (73.8)	71 (80.7)	101 (96.2)	111 (95.7)
합 계		103	149	146	193	73	87	65	88	105	116

4 조치 유형별

◇ 과징금 중심으로 중조치가 부과(14건)되었고,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의 다수 발생으로 경조치 비중(87.9%)이 높음

- (중조치)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과태료(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1건) 조치
- (경조치)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온라인소액증권 결산 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에 대해 주로 경고·주의 조치(102건)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 조 치	과 징 금	35	(23.5)	30	(15.5)	18	(20.7)	18	(20.5)	11	(9.5)
	증권발행제한*	3	(2.0)	16	(8.3)	-	-	4	(4.5)	1	(0.9)
	과 태 료	29	(19.5)	6	(3.1)	3	(3.4)	-	-	2	(1.7)
	소 계	67	(45.0)	52	(26.9)	21	(24.1)	22	(25.0)	14	(12.1)
경조치(경고·주의)		82	(55.0)	141	(73.1)	66	(75.9)	66	(75.0)	102	(87.9)
합 계		149	(100)	193	(100)	87	(100)	88	(100)	116	(100)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II.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온라인소액증권 관련 공시위반

▶ (사례) 비상장법인 A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269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업연도 경과후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미게재

- (회사)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으나
 - 공시전담 인력, 조직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바, 사전에 공시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 (투자자) 온라인소액증권 투자자는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매년말 게재된 결산자료를 통해 발행인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필요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비상장법인 B는 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나

- 투자조합의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함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모 발행으로 착각하여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회사)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 투자조합에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명부 등을 조합에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
- (투자자) 투자대상 회사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투자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사례)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C는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주요사항보고서에 동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
- (회사)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투자판단시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미기재할 경우
 - 발행회사가 담보제공 없이 회사의 신용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어 충분히 공시할 필요
- (투자자)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통해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

4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사례)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법인 D는 경영사태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회사)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제도를 활용할 필요
- (투자자)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III. 향후 계획

- ◆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하여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교육할 예정

□ 투자자보호 등에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반복 위반(2년 이내 4회 이상) 법인에 대해 가중조치(경조치 → 과징금 등)가 가능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업계 안내, 교육 등 실시

-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적극 안내하고,
-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

* (예)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등 공시위반 유의사항 등